

【서평】

## 극단주의와 폭력의 사회성, 그 교육적 대응

이대훈 지음,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서울: 민, 2016.  
린 데이비스 지음, 강순원 역, 『극단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 경기: 한울아카데미, 2014.

오주현 (전남대학교)

폭력의 종류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 이 두 가지로 나뉜다. 린 데이비스의 ‘극단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은 직접적 폭력(물리적 폭력)으로서 폭행, 폭동, 테러, 전쟁 등 극단주의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대훈의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은 간접적 폭력(구조적 폭력)으로서 가난, 굶주림, 차별, 인종 분리 정책, 억압 등의 원인과 구조적 폭력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폭력적 사회에서 평화로운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학교 현장의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각 책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비교하며, 학교 교육에서의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적 경험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학교 제도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9~24세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sup>1)</sup> 또한 2017년 인천 초등학교 살해 사건을 비롯하여 최

근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흉악해지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 부산광역시 여중생 폭행 사건<sup>2)</sup>의 논란이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폭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었고, 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행위를 줄이고, 재발 방지는 처벌이 아닌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sup>3)</sup> 특히, 이와 같은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의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부모와 가정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와 종교의 이념, 제도, 교육 시스템의 문제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들과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의 속도로 인해 다양한 각종 위협과 사회문제, 입시경쟁 속에서 엄청난 혼란을 계속 겪고 있으며, 나와 다른 타자, 약자들을 무시하고, 폭력과 차별로 전이되어진다. 또한 격변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주역인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 지속가능한 탈분단,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혼란을 줄이고, 협력과 상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1) 송근진, “청소년들의 불안 성향과 공격적 성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 석사학위논문, 2018), pp. 1~40.

2) “부산 여중생들 또래 여중생 피투성이 되도록 폭행 후 무릎 꿇려,” 『서울신문』 (온라인), 2017년 9월 5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3500085&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3500085&wlog_tag3=daum)).

3) 이영민, “보호관찰 청소년의 시민성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pp. 1~117.

두 책은 각각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을 다루지만, 사회적 제도나 이념, 가치체제에서부터 방법을 찾는 하향식 접근이 아니다. 일상과 교육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 한다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특히, 린 데이비스는 학교와 종교가 극단주의로 어떻게 몰고 가는지에 대한 요소들과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대훈은 교육에서 다양한 예술매체들을 사용하며, 비판적 사고와 나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보기, 서로 배움 공동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제 두 책을 통하여 글로벌하고 다원화되어가는 시대에 자신의 우월성과 편견을 깨고, 상호존중과 소통, 참여, 갈등해결능력을 체득하는 교육의 장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하나의 진리와 이원론, 주입식 교육

2014년, 우리를 대혼란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분노를 가져왔다. 위협적인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여 보호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리고, 이 현상을 주입식 교육과 관련시키며,<sup>4)</sup> 그동안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권위 있는 자의 말에 순응하는 하게 만든 원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두 권의 책을 통하여 반추해보고자 한다.

린 데이비스는 기독교,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의 폭력의 시발점을 유일신과 이원론과 흑백논리의 교리로 부터 출발한다. ‘우리와 그들’을 구성하고 선과 악의 이항대립적인 사고방식, 절대적이고 엄격한 종교 교리는

<sup>4)</sup> “이석문 제주 교육감 ‘세월호 참사는 주입식 교육 때문,” 『한라일보』 (온라인), 2019년 9월 29일;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5123725547402014>>.

교도들의 트라우마, 허약함, 두려움, 굴욕, 소외와 고립, 좌절, 유평피아적 비전의 초석이 되는 탈영토화 사고와 뒤엉켜 강한 시너지(폭력)를 만든다. 교도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부에 의존하며, 무조건적인 복종, 무비판적인 신념에 빠지고,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를 신앙에서 찾으려 하며, 걱정적인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하나의 신(진리)만을 주장한다.

이대훈은 폭력의 시발점을 전통적인 교육방식, 전달식(주입식)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한다. 교사의 지식과 말을 우월하게 만드는 주입식 교육은 자기 삶과 연결 짓지 못하게 하며, 전문가로 상징되는 교육자 앞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망설임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위계감들은 부정적인 힘과 권력으로 상상하게 만들고, 교육 바깥으로까지 전이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지식이 많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며, 주입식 교육에서 비롯된 위계적이고, 위계적 질서를 고정하고 싶은 욕구와 기존의 권력을 행사하며, 숭배자들을 만들어 낸다.

두 책에서의 극단주의자들의 종교 교육과 교육현장에서의 주입식 교육은 고정된 진리, 이분법적 사고, 위계적 배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사회적 폭력과 불평등을 야기 시키며, 나아가 홀로코스트, 테러리즘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데이비스와 이대훈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위계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는 방법들로 새로운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여 긍정적 힘의 경험을 제시한다.

### 비판(성찰)적 사고와 낯설게 보기

두 책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에서 길들여진 학생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며,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방법들

을 찾아보고자 한다.

린 데이비스는 문화적 정체성에 관하여 설명한다. 아이들을 아주 이른 시기부터 단일한 신앙 환경에 놓이게 하고, 종교가 우선시되도록 성장하면서 유일무이한 소속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경험한다. 데이비스는 위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새로운 결정에 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이야기 한다. 아이들이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성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사상을 탄압하고 배척한 결과에 대한 실천적인 질문과 논쟁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대훈은 우리도 모르게 습득되어 무더져버린 구조적 폭력과 차별의 일상을 낯설게 보는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문화나 전통이라고 간주되었던 것들, 소수보다는 주류가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 낯설게 보기는 나 타자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삶과 배움의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린 데이비스와 이대훈의 비판(성찰)적 사고와 낯설게 보기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첫 단추이다. 극단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 입시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학생들 모두 익숙한 일상과 행동 등에 의구심을 갖고, 낯설게 보기를 통하여 분리된 신체와 감정을 연결하고, 나의 욕구들을 알아차리게 해야 한다.

## 매체의 활용 : 문화예술과 미디어

두 책은 예술과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대훈은 연극과 움직임, 음악 등을 통하여 다채로운 느낌과 감성을 인지하면서 회복의 도구로서 매체를 활용한다고 언급한다. 데이비스는 코미디, 음악, 만화 등의 매체를 이해하고, 읽고, 만들어내는 교육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와 낯설게 보기를 유도를 설명한다.

또한 데이비스는 미디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성찰을 잃지 말아야 하고, 학생들은 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하며, 비판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논쟁적 이슈와 담론을 분석할 수 있는 기량과 성향의 개발성을 이야기 한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타자성’에 관해 배우는 위험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미디어를 통하여 숨은 의제를 찾아내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한다. 또한 블랙 유머는 강력한 저항도구로서 말해지지 않은 진실을 터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전능한 대상(하나의 진리)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 사례를 든다. 코미디와 음악 등의 예술 매체가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유로운 표현의 도구로 쓰인다고 말한다. 또한 예술 작품 속에 포함된 담론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대훈도 그림, 이미지, 음악, 소리, 촉감, 색깔, 의복, 음식 등에 포함된 시대적 미, 추의 상징과 문화적 상징과 기호를 사용하여 평화와 폭력에 관한 배움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시장과 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아에 폭력적인 타자들이 인위적으로 주입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적 페다고지’는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을 사용하여 감각과 삶의 단절을 서로 연결하여 성찰하는 도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예술 활동을 통하여 억압되었던 자신 내면의 감정과 감수성을 회복하며, 미적 감수성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된 힘을 찾고 긍정하는 경험하며 배움의 지속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였다.

이 두 저자는 예술과 미디어 속의 숨은 상징과 기호의 해석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예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내면의 감정과 감수성을 표현하고 회복시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학교 현장에서 예술을 통한 삶을 성찰은 매우 중요하며, 예술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예술교육은 입시과

목에 밀려, 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 삶을 성찰하는 예술이 아닌 완벽하게 예술을 재현하는 방식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예술성과 창의성, 예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예술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예술 교과는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렇듯 한국사회도 다원적 가치와 감수성 회복을 포함한 페даго지적 예술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서, 공감, 협동, 의지, 성찰 등을 다루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예술교육의 부재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다양성 존중

린 데이비스는 학교에서의 다양성 다루기를 언급하면서 종교, 민족에 의해 분리된 학교는 사회적 통합에 해악을 끼치고, 일신론적인 견해,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킴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혼합 학교에서의 다양성 및 다문화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오히려 좋고-나쁜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어 분리를 촉진시킨다. 통합된 환경에서 함께 배우기, 모든 종교의 공통성을 강조하기,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기, 집단 사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신앙체계에 관하여 솔직하고, 비판적으로 대화하기를 제안한다.

이대훈은 ‘타자와 낯설게 하기의 페даго지’ 부분에서 역할극에 대하여

설명한다. 타자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타인의 목소리와 감정을 통하여 느껴보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반추하여 언어화하게 시켜,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자기 경험을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자-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자신 속의 여러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깊은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유도한다.

그러나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무조건적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강조하는 경우, 오히려 ‘자-타’의 분리를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데이비스는 다양성 교육에서 소수자, 약자의 문화로 분리하여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월성을 더 강조시키며 분리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대훈은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여 내적인 평화를 획득한 후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교육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동질성이 약할수록 더 풍성하고, 좋은 배움을 만드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현장에서는 장애, 비장애 분리된 학교 및 교실, 남, 여가 분리된 교육, 소수민족을 위한 학교에 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은 자-타(이원론)를 구분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는 교육이 아닌, 이원론의 경계를 허물고, 다중적 목소리들이 나오도록 세심한 구조와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학교 현장에서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정중심 교육의 필요성

데이비스는 책의 초반부에 완전성과 수월성에 대한 전 지구적인 집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것은 평가기준과 학교 평가 일람표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나라의 교육에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완전성 추구는 극단주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자면, 입시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예술 교육까지도 기준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 평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예술교육의 핵심 가치를 광의의 인간 교육에 중심을 두고, 예술 활동이 경험, 목표, 성과를 넘어서 삶의 목표나 가치와 연계되어 구성되어져야 하지만, 삶의 변화를 누군가(권력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대훈의 저서를 빗대어 보자면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교사는 평가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으로서 총괄적 평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정중심의 교육현장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느낌, 성찰을 발견하고, 말하기와 듣기, 만지고 느껴보고 공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잠재된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내어가는 자력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여기’의 역동적 현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현실의 변혁을 지향하는 주체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가 아닌 촉진자, 협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대훈 저자는 책 후반부에 촉진자의 역할과 교육 분위기에 대하여 세세하게 나열한다. 첫 번째로 진정한 환대와 느린 배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느끼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진행자(교사)는 자신을 낮추고 참가자를 최대한 존중하며, 매 소통마다 환영과 축하해 주면서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셋째, 참여자의 잠재된 힘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감이 필요하며, 진행자 또한 부족함을 인정한다. 넷째, 참여자들의 반응과 발언을 서로 연계시키며 배움의 확장을 유도하고, 배움이 삶과 연계되도록 하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성찰적 질문을 단계적으로 사용한다.

삶의 성찰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평가와 결과가 중시

되고 유지된다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평화교육과 삶을 위한 예술교육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과정 중심적이고, 자신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 성장을 지지해주는 촉진자들, 삶을 성찰하고, 감수성을 회복의 목적을 둔 예술교육이 살아난다면, 흉악한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고, 자신의 감각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결론

두 권의 책을 읽고, 아동, 청소년의 문제와 학교현장에서의 평화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성폭력피해자 쉼터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심리치료 중재를 시도해도 아이들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드라마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의 상처가 폭력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받았던 억압, 차별,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 분노의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을 부모의 물리적, 정서적 부재로 생각하고, 부모교육이 필수 정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기회가 되면 제안하였다. 하지만, 5, 7살 아이들을 키워보니, 부모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혼란을 가중시켰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과 말에 귀 기울여 줘야하는 필요성을 알게 되면서 당장 일을 하기 보다는 양육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다. 현실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 두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 클 것 같은 염려와 죄책감을 감당하고 있다.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맞벌이 부모에게 기본소득을 주며,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비행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해결될 것 같았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같은 국가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작고, 형식적인 정책은 있느니 못한 것 같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을 느끼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 일에 대한 강박관념,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왜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려면, 외벌이로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만 실감했다.

올해 초 신 경제주의 공부를 하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것 같아 암담함 때문에 우울감도 느꼈다. IMF와 신경제주의를 지나온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인간’이 아닌 ‘인력자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자기계발과 노력, 끊임없이 배우고, 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엘리트와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체제가 나를 혹독하게 가두거나 확대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내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 어둡기만 하였다. 그렇다고 관망만 하며, 신세 한탄만 할 수 없고, 무엇인가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자본이나 또 다른 가치체제, 종교가 아니고, 교육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라는 대학교 시절, 교양수업의 시험문제가 다시 생각났다. 그 때는 이상한 답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중 보스니아 전쟁 지역에서 전쟁을 겪은 아이들을 위해 파견된 음악 교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있는 두 지역 아동들을 함께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하는 긍정적 정서를 서로 향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때 못썼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두 지역의 아동들을 함께 예술교육을 하겠다는 답이 이 책을 읽으며 다시 상기 되었고, 린 데이비스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배우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게 만드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극단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성향의 폭력성과 교육으로서의 대응을 이야기 하였다. 하나의 진리와 이원론에 고착하게 만든 종교교리와 주입식 교육은 폭력을 야기 시킨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와 성찰은 신체와 감정을 연결하며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을 낳게 만든 ‘나-타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감각의 단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양성 교육과 예술교육을 통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데이비스의 평가제도와 극단주의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정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분위기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두 책이 제시하는 평화교육의 담론들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평화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로서 또 다른 ‘세월호’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자살률 1위’, ‘엽기적 살해’등 한국사회의 폭력성이 줄어들고,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염원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평화교육을 통하여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오주현(Oh, Joohyun)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학교 문화학과 박사 재학 중이다. 현재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TEPI(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의 연구위원으로 문화예술 페다고지 평화교육과 탈분단 교육 등을 연구하고 있다.